

산수문학에서의 閑情

孫 五 圭*

차 례

- | | |
|-------------|-------------|
| I. 序 論 | IV. 歸思의 지향성 |
| II. 隱遁의 이상 | V. 結 論 |
| III. 任情의 탐미 | |

I. 序 論

산수문학에서 閑의 공간은 자연 즉 산수이다. 閑情은 산수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혹은 興起되는 서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간으로서의 閑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우선 사회적 의미로는 일체의 공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니, 조선조 사대부들은 관리로서의 공적인 신분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생활의 공간을 도회로부터 자연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며 가치적으로는 공리적인 입장에서 개인적 취미의 판단과 가치기준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산수문학에서는 山水隱居를 통하여 산수미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산수미는 미적판단으로서 취미판단에 속하며 또한 그의 가치관에 따라 그 내용미와 산수생활에 대한 가치판단과 지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즉 산수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의하여 선택된 인생의 방향설정인가 혹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적 강압에 의한 원하지 않는 상황의 到來인가에 따라서 그 수용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 수용의 태도는 산수생활에 대한 적극성과 부정성의 지향성을 결정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서정성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閑情은 閑의 공간과 그 서정성이 결합된 미적 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閑情의 미적 위상을 일반적 개념으로 설정하여 평가의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문학적 개성과 독창성의 측면에서 解析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그 시도의 일환으로, 許筠의 『閑情錄』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문학적 개성과 독창적 미적 境界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隱遁의 이상

許筠은 「答李生書」에서 文은 西厓 柳成龍을 따라 배웠고 詩는 蓀谷 李達에게서 배워 바야흐로 문장의 길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음을 알았다.¹⁾고 했다. 蓀谷은 최경창 백광훈과 함께 三唐詩人으로 일컬어졌으며 허균이 선조 때의 새로운 흐름인 學唐派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볼 때 허균은 唐詩를 시의 모범으로 여겼으며 특히 李達에게서 시를 배웠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唐詩는 이백과 두보로 대표되는 盛唐의 시인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鵝溪 李山海와 鬪峯 高敬命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近代 館閣에서 李鵝溪를 최고라고 한다. 그 詩가 初年에는 唐을 배웠으나 晩年에 平海에 귀양가서 비로소 極을 이루었다. 그런데 高鬪峯의 詩도 閑廢 중에 바야흐로 大進을 깨달았으니, 이에 문장은 부귀영화에 있지 아니 하고

1) 許筠, 『惺所覆飯藪』, 卷下, 文部七, 答李生書
文從西厓相學 詩從蓀谷學 方知文章之選 在是不在彼

험난함을 겪고 江山之助를 얻은 然後에야 可히 그 妙境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 어찌 오직 두 사람에게만 그러하리오. 옛 사람 모두가 그러한 것을.²⁾

윗글에서 '晚謫平海'를 經歷險難이라고 한다면 '亦於閑廢中'은 得江山之助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허균은 일단 經歷險難에서 소재를 취해서 그 시의 경계를 이룸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며, 江山之助에 의하여 世俗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현실적 구속을 벗어나서야만이 진정코 시의 참된 심경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 시에서 표현하고 느끼는 감정의 미적 위상이 시의 기교에 구애됨이 없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경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아몽던 허균은 시의 완성이 經歷險難이나 江山之助와 같은 체험을 통하여 그 미적 경계가 大進하고 진정코 오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으니, 歸隱의 관념적 세계는 혹 그의 생애를 참고로 할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經歷險難의 처지에서 江山之助를 얻어 安穩本色하고자 하는 심경의 어떤 경계에 대한 형상화가 아닐까 한다. 즉 현실은 그의 氣質에 맞지 않았으며 벼슬살이도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적절한 삶의 방식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결과 벼슬생활도 순탄하지 못하였으며 생애 또한 불운했던 것이니 은둔의 出世觀은 이상적 계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근거는 任誕으로 대표되는데, 任誕은 곧 禮로써 대표되는 현실생활로부터의 정신적 자유에 대한 希求라고 하겠다. 다음의 시를 살펴 보자.

閑罷官作

오랜 독서로 많은 教를 배우고 닦음은
내 마음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
미쁜 아내를 오히려 아직 보내지 못하였으니
어찌 고기를 다시 禁하기가 어렵지 않으리
이미 분수는 높은 벼슬과 멀어져 버렸는데
어찌 벼슬하지 못하게 된 것을 근심하리오

2) 許筠, 『惺所覆瓿稿』, 卷二十五 說部四, 惺叟詩話

近代館閣 李鶴溪爲崔 其始初年法唐 晚謫平海 始造其極 而高齋峯詩 亦於閑廢中 方覺大進 乃知文章不在富貴榮耀 而經歷險難 得江山之助 然後可以入妙 其獨二公 古人皆然

인생은 또한 하늘의 뜻에 따라 편안히 하는 것
 들어가 절을 섬기길 꿈에서나 그려 볼까

久讀多修教	因無所住心
周姿猶未遣	何肉更難禁
已分靑雲隔	寧愁白簡侵
人生且安命	歸夢尙祇林

『閑情錄』제 11門 名訓에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독서는 이익이 있고 손해 없다. 산수를 사랑함도 이익이 있고 해가 없다.
 風月花竹을 사랑함도 이익은 있으나 해가 없다. 端坐靜默도 이익이 있으나
 해가 없다. 이를 일러 至樂이라고 한다.
 蘇子由가 말하기를 질병이 많으면 道를 배움이 마땅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부처를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³⁾

‘愛溪山’, ‘玩風月花竹’은 산수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端坐靜默’은
 어떤지 종교적 취향이 느껴진다. 그리고 ‘讀書’는 유가의 필수이다. 그런데 허균
 의 독서적 취향은 ‘四千卷의 異書’나 ‘六千卷의 佛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위의 시에서처럼 그의 독서는 ‘多教’에도 관심의 영역을 넓혔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이를 모두 포함하여 허균은 ‘至樂’이라하여 그 개념을 자기 나름
 대로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허균의 至樂은 산수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산수
 생활의 모습이 유가적이지 않은 것이 그 지향하는 이상의 세계를 집착하게 한
 다. 즉 그의 산수생활의 樂은 산수 속에서의 수양에 있는데 그 수양의 내용이
 불교나 노장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를 蘇子由의 말로서 대
 신하고 있는 듯 한데, 이 말에 근거하면 허균의 산수생활에 의한 超現實的 경
 향과 불교나 노장에 대한 관심은 그가 ‘多憂患’하기 때문이다. 이 ‘多憂患’은 결
 국 그의 벼슬살이의 험난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의 시에서 말한 罷官이란 현실적으로 관리인 허균에게는 ‘多憂

3) 許筠, 『閑情錄』, 卷十一, 名訓

惟讀書 有利而無害 惟愛溪山 有利而無害 惟玩風月花竹 有利而無害 惟端坐靜默
 有利而無害 是謂至樂 蘇子由云 多疾病則學道宜 多憂患則學佛宜

患'이요, '多憂患則學佛宜'라 하였으며 '學佛'은 '有利而無害'이므로 이것은 곧 至樂을 일컫는 것이다. 憂患은 그 앞의 질병과 對가 되는 말이니 아마 질병은 육체적인 병이며, 憂患은 마음의 병인 듯하다. 그러니 그가 불교를 배우고 또 불교를 수양하는 것은 마음의 병 즉 관리로서의 정치적 삶에 의해서 생긴 마음의 병을 고치고 위로받고자 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허균의 산수생활이 유가적 전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현실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가 文說에서 '經歷險難'과 '江山之助'를 언급한 것도 자신의 현실도피적 혹은 出世的 관념의 긍정적 모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허균은 자신의 至樂을 위해 佛書를 읽고 수양한 것이나 사회의 문화적 환경은 그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던 것이니, 人生且安命 歸夢尙祇林이라 읊은 것은 자신의 기질과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이상적 산수생활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강산지조를 얻어 지은 시는 높은 운치와 멋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신선의 경지에 든 듯한 상상에서 관념적 유희를 통한 즐거움과 열정에 사로잡혀 호방한 세계를 거침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결국 허균이 문학적 이론이나 경향에 대한 관심여부보다는 오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문학울 추구한 문학관에 그 중점이 있는 것 같다. 다음의 시를 살펴 보자.

竹月軒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왕회지가 맑은 바람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대나
 무 움직임을 사랑하는 것
 또 보지 못했는가 이태백이 술을 마시며 청천의 명월에게 묻던 것을
 달을 대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번거로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대를 심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俗塵을 절연케 하는 것을
 그대의 집처럼 달을 대하고 대를 심으니
 번거로운 마음에 있는 俗塵을 모두 말끔히 씻어 주노나
 신기한 기운이 어두운 숲에서 일어나니
 맑고도 깨끗한 빛이 내 집을 맑게 하누나
 앉아서 드문 창으로 내다보이는 별을 바라보니
 이슬내리는 기운과 가을바람 사랑이는 소리, 모두가 淸絶이로다
 蕭然하던 마음의 운치가 씻기어 차갑게 맑아지니
 두 노인을 부를 양이면 가히 탄복하게도 하련만
 나는 대 숲의 집에서 길게 소리하며

계수나무 향기에 취해 신기한 과일을 먹으리
 모름지기 주인이 오는가 다시 문지를 말라
 고운 대 숲을 헤치고 月宮을 보리로다.

君不見王子猷愛聽清風動窓竹	又不見李謫仙把酒青天問明月
對月令人靜煩襟	種竹令人絕塵俗
豈如君家對月兼種竹	煩襟俗塵俱蕩滌
翛翛靈蘊生晚林	皎潔蟾光淨我室
坐看星斗入疎櫺	露氣秋聲兩清絕
蕭然襟韻濯氷壺	喚起二老膝可屈
我欲長嘯竹裡館	懷抱桂香澹紫實
不須更問主人來	披拂琅玕看銀闕

蕭然襟韻濯氷壺는 王羲之의 種竹令人絕塵俗한 경지와 동일함을 말하며 李謫仙이 對月令人靜煩襟하던 심경과 같다. 대를 심는다는 것은 산수은둔생활을 의미하며 把酒青天問明月하여 對月令人靜煩襟하는 것은 산수은둔의 지락으로서의 閑情을 표상하는 이상생활의 서정을 말한다. 그러니 蕭然襟韻濯氷壺는 歸思를 통한 閑의 공간과 생활에서 느끼는 허균의 마음의 즐거움으로서의 서정이며 閑에서 체험하는 情으로서의 심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상의 관념적 즐거움과 동경을 드디어는 喚起二老膝下屈 懷抱桂香澹紫實이란 신선의 경계로 형상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을 살펴 볼 때 許筠의 閑情은 江山之助에서 느끼는 山水樂의 서정으로서 그 순간 체험하게 되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산수은둔은 관념적 이상으로 유가적이기보다는 노장적이며 불교적 수양의 정신까지도 가미된 것으로 현실적 실현의 여부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체험을 중요시한 感性爲主의 抒情이 깊다고 할 것이다.

Ⅲ. 任情의 탐미

허균의 經歷險難이란 그에게는 관리로서 정치적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며,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임진왜란 이후 살림살이의 어려

움, 특히 관가나 정치권력자들에 의한 경제적 수탈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허균은 특히 그 당시 백성들의 經歷險難을 시로써 대변하기도 하였으니, 그는 시가 世敎의 방편으로서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고 관리들에게는 현실의 혹독함을 寫實적으로 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데 治者が 백성을 교화하기 위하여 시를 짓는 경우는 상당히 교훈적 요소를 지니게 되지만,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의 經歷險難을 소재로 시를 지을 경우는 현실의 상황을 여실히 묘사할 뿐만이 아니라 풍자적인 성격도 띄게 된다. 다음의 시를 보자.

記 覓

노인들은 서로 만나도 슬퍼하는 빛이 없고
 하나같이 올해의 태수는 어질다고 말하는구나
 적의 말들을 모두 몰아와 관청에서 기르고
 군량미 남부를 재촉하여 바다 속에 저장하였네
 타다남은 오두막집은 백성들이 거의 없는데
 濼溝파느라 모두 나가고 집들은 거의 다 비었다네
 길에서 들으니 관군은 上院으로 옮긴다 하니
 성은 누가 지켜 睢陽이 될 것인가

老翁相對不悲傷	共說今年太守良
賊馬盡驅衙裡養	軍糧催納海中莊
燒殘廬舍民無庇	繫就濼溝戶半亡
聞道官軍移上院	守城誰是許睢陽

戰亂과 부역 그리고 세금 독촉으로 생의 의욕을 잃고 슬픔조차도 느낄 수 없는 급박하고 곤궁한 백성의 삶과 책임없는 관리들에 의해 전쟁의 위험 속에 내버려진 백성들의 삶이 여실히하고도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이 시는 백성들의 經歷險難을 통하여 관리들의 책임의식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는 뜻이 강하다. 동시에 그들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현실고발적인 풍자시라고 할 수도 있다. 즉 젊은이는 모두 전쟁에 나가거나 죽고 불타버린 오막살이 집과 폐허가 된 관아만이 남은 황량한 거리와 마을은 생에 대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허무한 감정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래도 관리들의 수탈은 그치지 않고 늙은이조차 부역에서 죽어가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 거기다 달아날 궁리만 하는 官軍 그래도 나라를 지킬 군사없음을 걱정하는 순박하고 어진 백성의 가련한 심정

이 사실적으로 잘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허균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비판적이며 사실적임을 알 수 있는 시라고 하겠다. 그런데 위의 시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현실묘사보다도 오히려 백성들의 삶에 대한 虛無感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는 하였지만 그 상황을 짐작하게만 하였지 구체적 생활의 험난함 즉 사건에 대한 묘사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전쟁의 상황에 내버려진 백성들의 생에 대한 좌절과 허무의식이 시전체를 흐르는 정서라고 해야만 옳을 것이다. 이러한 허무의식은 감정묘사에 충실한 때문이며 사람의 감정을 시의 주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허균은 그의 歸思 후의 산수은둔생활에서도 任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듯하다. 즉 산수은둔은 자신이 느끼는 感情的 體驗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任情이란 곧바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맡기는 것이니 생의 변화를 이성적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감성적 체함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습으로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任情은 任誕과 상통하는 것이며 시에서는 개성의 강조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 감정의 중요성은 그의 현실풍자적 시가 매우 사실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감정에 대한 묘사도 대단히 치밀하며 사실적이라고 하겠다. 감정의 중요성과 그 묘사의 치밀성은 허균시의 서정성을 깊게 만들며 자신의 감정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감정의 고통과 아름다운 정서에 심취하는 탐미적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허균이 문장에 있어 氣를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데, 氣를 강조하는 것은 氣質之性을 강조하는 것으로 任誕이나 任情이 곧바로 타고난 인간의 기질적 요소인 감성의 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人心을 막고 항상 道心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활 속의 행동 규범의 원리로 말한다면 곧 克己復禮라고 할 수가 있다. 곧 언제나 도덕에 근거한 행동이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는 예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의 사대부들은 형식에만 얽매어 진정한 인성을 이루는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당연시 하였다. 따라서 허균은 차라리 이러한 형식에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참된 인성

의 회복을 위하여 任情에 따르고자 하였던 것이리라. 그의 사랑을 주제로 한 시가 이런 관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의 詩話에는 賤流나 妓女, 승려 등의 작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문학에서 개성의 존중과 생활어의 사용도 거론하고 있다. 다음의 시를 살펴 보면 이러한 점을 잘 알 수가 있다.

黃牧送二妓

해당화 첫잠들어 숲은 바야흐로 한창인 제
꽃잎같은 비단치마 푸른 산을 물들였네
참으로 가신 님은 돌아오지 않으시니
그대에게 망강남을 다시 한 번 청하노라

옥같이 고운 봄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한낮에 가벼운 바람은 얇은 비단 적삼을 스치네
가만히 거문고 한 번 타니 잠던 제비 잠짝 놀라
비단 발 내린 높은 곳에서 지지배배 지지귀네

海棠初睡酒方酣
正是離人歸不得

葉葉羅裙染翠嵐
請君重唱望江南

玫瑰和雨落寥寥
寶瑟一彈驚睡燕

日午輕颺透薄衫
綉簾高處語呢喃

위의 시에 등장하는 기녀의 아름다움은 현실의 인물이 아닌 듯하다. 더구나 해당화 편 봄날의 환경과 새들의 지저귀 그리고 그 얇은 비단 치마와 적삼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곡조 모두가 너무나 곱다. 즉 곱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아픔을 그림같은 여인의 묘사로 더 한층 애처럽고 애절한 감정으로 형상화 하였다. 마치 기녀를 선녀로까지 승화시키는 상상에 젖어들게 한다. 허균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이 시는 사랑의 애절함과 애처로움의 감정을 대단히 미학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단히 유미적이다. 이 유미가 허무감과 함께 현실초월적 신선사상과 결부될 때 그 서정의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루어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그 감정의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탐미의 詩境을 열게 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시에서 기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음률과 사랑의 감정을 仙界와 연결시키므로써 탐미의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哀桂娘

묘한 경계의 시구는 비단을 펼친 듯 곱기만 하고
 맑은 노래소리는 머뭇 구름을 풀어내듯 흩어지기도다
 하늘나라 복숭아를 훔쳐 인간세계로 내려왔다가는
 불사약을 훔쳐 인간세상을 떠나가버렸구나
 부용꽃 휘장 속에는 불빛마저 침침한데
 비취색 치마에는 아직도 향기가 남아 있구나
 새 봄이 돌아와 작은 복사꽃 피어날 즈음이면
 누가 있어 설도의 무덤을 지나치며 애답아하리

妙句堪摘錦
 偷桃來下界
 燈暗芙蓉帳
 明年小桃發

清歌解駐雲
 竊藥去人群
 香殘翡翠裙
 誰過薛濤墳

‘下界’는 上界 즉 신선세계를 염두에 둔 말이다. 그러니 계량은 원래 仙界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竊藥去人群은 계량의 죽음을 신선적 차원에서 표현한 말이다. 인간의 죽음을 신선적 차원에서 신선이 仙桃를 훔쳐 인간세계로 쫓겨 났다가 다시 선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로서의 운명적 한계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明年小桃發 誰過薛濤墳에서 그러한 한계를 절감한 슬픔의 감정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즉 곱고 재주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의 감정을 자연물과 비교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휩싸고 있는 것이다. 복사꽃은 내년이면 어김없이 다시 피련만 한 번 간 님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의 슬픈 감정인 것이다. 그래서 위의 시는 단순히 계량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을 잃은 즉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의 슬픈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정시이다. 자신의 순수한 정서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순수시적이면서도 탐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와같은 허균의 순수서정에 대한 탐미는 그의 산수생활에 대한 동경인 歸思의 지향성을 암시하는 근원이 된다.

IV. 歸思의 지향성

許筠의 『閑情錄』은 모두 16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균 晩年の 저술로 아마도 그 생애를 지배한 사상적 근거와 閑情이라는 삶의 지향성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체계화된 저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허균은 『閑情錄』의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庚戌年 여름 병으로 일에서 물러나 杜門擲客하고 하릴없이 나날들을 보낼 때, 巾衍中 마침 몇 帙의 책을 얻었으니 곧 朱蘭嵎太史가 보내 주신 것으로 樓逸傳 玉壺水 臥遊錄 三種을 반복하여 살펴 보고 이에 三書를 取해서 四門으로 분류하여 이름하되 閑情錄이라 하였다⁴⁾

위의 기록을 살펴 보면 『한정록』의 편술동기와 그 내용상의 경향을 짐작하게 하는데, '抱病謝事 杜門擲客 無以消長日'이 閑의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다. 즉 벼슬에서 물러나 모든 공적인 번거로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閑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회를 情이라고 하였으며, 樓逸傳과 玉壺水 臥遊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서 발견하고 느낀 바 있어 그 三書의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구절을 가려 뽑아서 四門으로 편술하였던 까닭으로 그 책의 이름을 『한정록』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조 사림들의 閑을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세상사의 번잡함과 부귀공명의 얽매임, 또는 벼슬살이의 불안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무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변모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가 산수를 노래하되 貧而無怨과 安貧樂道를 노래하고 躬行聖道の 가치 실현을 만족해 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선조 사림이 갖는 閑의 의미는 타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진 삶의 모습으로 현실도피적 성향과 현실적 삶에 대한 회의와 허무를 지향하기도 한다. 아뭏던 閑에 대한 이런 상이한 자세는 산수문학에서 산수미를 묘사하되 그 지향성의 다양성을 가져오게도 하였다.

4) 許筠, 『閑情錄』, 凡例.

余在庚戌夏 抱病謝事 杜門擲客 無以消長日 巾衍中 適披得數帙 仍朱蘭嵎太史所贈 樓逸傳 玉壺水 臥遊錄三種 反覆披覽 仍取三書 爲四門類彙 名曰閑情錄

허균의 閑은 성향상 후자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은 樓逸傳 玉壺水 臥遊錄과 같은 서적을 反覆披覽하고 심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그 내용을 선택하여 『한정록』까지 저술했다는 사실이 단순한 취향이나 기호의 차원을 넘어 그 사상적 일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술된 『한정록』은 그 뒤 甲寅 乙卯 두 해에 걸쳐 四千餘卷의 서적을 구입한 뒤 그 중에서 事涉閑情者를 취해서 부첩을 만들었다고 하면서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閑情錄이 이에 이르러 거의 완비되었으니 나의 歸思가 더욱 이 책에 드러났다.⁶⁾

허균이 타의에 의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면서도 『한정록』을 저술한 동기는 바로 '歸思'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으니, 허균이 의미하는 閑은 벼슬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해 나가는 변화된 의식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 생활에 대한 동경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념상의 세계이었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 『한정록』의 완성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晩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마도 凡例의 '而僕之歸思 益著於是矣'에 '益著'는 歸思의 간절함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가 놓인 정치적 현실이 그만큼 더욱 급박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의 문제는 미래의 삶에 대한 이상적인 삶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여부를 감안한다면 분명 허균의 閑은 산수에 대한 동경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반성적 삶의 사색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반성적 삶의 사색은 산수를 찾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태도로서 어디까지나 존재로서의 본질적 삶과 근본적 삶의 양식에 대한 모색과 변화의 추구

5) 許筠, 『閑情錄』, 凡例.

甲寅乙卯兩年 因事再赴帝都 斥家貨 購得書籍 幾四千餘卷 就其中 事涉閑情者 以浮帖

6) 許筠, 『閑情錄』, 凡例.

噫 閑情錄 到此庶爲完備 而僕之歸思 益著於是矣

라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한정록』의 내용들이라는 점은 閑의 생활공간과 삶의 형태, 그리고 한의 정신적 경계를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곧 한의 정신적 경계는 산수에 묻혀 살아가고자 하는 허균의 이상과 산수를 노래한 시들의 미적 위상을 동시에 알아 볼 수 있는 문학적 바탕이 된다.

『한정록』의 내용은 인용된 서적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그가 凡例에서 말했듯이 歸思라고 하겠으니, 그 조목조목은 모두가 자신이 자연에 돌아간 뒤에 영위하고 싶은 생활상을 열거하되 高士賢人들의 생활을 여러 책에서 찾아내어 그대로 인용해서 실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범례에 나타나 있는 16門의 조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隱遁 2. 高逸 3. 閑適 4. 退休 5. 遊興 6. 雅致 7. 崇儉 8. 任誕 9. 曠懷
10. 幽事 11. 名訓 12. 靜業 13. 玄賞 14. 清供 15. 攝生 16. 治農

위의 16門 중에서 15.攝生은 특히 유학자의 산수생활로 보기에는 색다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다만 15.攝生이 다소 노장적 경향이 없지도 아니하나, 노장에 대한 동경이라기 보다는 현실의 각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살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인위의 사회적 삶보다는 타고난 성품에 어울리는 자연적인 삶에 대한 이상이라는 관념의 형상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1.隱遁에서 15.攝生까지와 16.治農으로 크게 二分할 수가 있는데, 16.治農은 다시 조그마한 제목이 붙어서 아래와 같이 나뉘어져 있다.

擇地, 資本, 定居, 種穀, 種蔬, 樹植, 蠶繅, 牧養, 順時, 務勤, 習儉, 擇種, 下種法, 養蠶, 養鷄, 養魚(17항)

위의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농경에 관한 안내서와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겠으니, 1.隱遁에서 15.攝生까지가 歸思 즉 산수자연생활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반영한다면, 16.治農만은 현실의 삶을 중시하는 허균의 현세관과 현실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한정록』은 허균의 산수자연에 대한 이상과 현실관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즉 그의 한의 경계는 벼슬을 떠나 관리로서의 삶을 떨쳐버리고 산수자연 속에서 농경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역시 산수문학의 閑情은 1.隱遁에서 15.攝生까지가 그 내용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그의 한정(한정)의 공간은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다소 이상적인 공간이며 그 삶의 양상이 노장적 경향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한정록』에서는 허균의 사상적 경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가 四千餘卷의 서적 중에서 하필이면 왜 그러한 내용을 선택해서 기록해 두었는가 하는 편찬의 의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편찬의 의도는 『한정록』에 수록된 내용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가 있으니, 바로 이 점이 허균의 사상적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한정록』의 16門 중에서 그 사상적 배경을 알아 보기에 적절한 항목을 골라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8.任誕을 살펴 보겠다. 任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 내용 중에서 몇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劉伯倫은 우주를 넓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상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술 한 병을 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래를 들고 따르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곧 그 자리에 그대로 나를 묻어버리라고 하였다.

劉伶은 항상 술을 싣고 마시고 放達하였는데 혹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집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비난하면 유령이 말하기를 나는 天地로써 집을 삼고 옷을 삼는데, 諸君들은 어찌 나를 옷 중에 들라고 하는고 하였다.⁷⁾

劉伶은 중국 췌나라 사람이며 伯倫은 그의 호이고 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서 「酒德訟」을 지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우주 가 좁다고 여기며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한 병의 술을 들고 사람으로 하여

7) 許筠, 『閑情錄』, 卷八, 任誕.

劉伯倫 以宇宙爲狹 常乘鹿車 携一壺酒 使人荷鍤 隨之曰 死便埋我
劉伶 恒縱酒放達 或脫衣裸形在屋中 人見譏之 伶曰我以天地 爲棟宇屋室 爲禪衣 諸君 何爲入我禪中

금 삼을 꿰어지고 그를 따르다가, 죽으면 곧 그 자리에 그대로 파묻으라고 한 것은 生死를 염두에 두지 않은 삶, 또는 생사까지도 초월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굴레인 생사까지도 벗어나고자 한 자연인의 모습이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백룡은 세속과 단절된 자연생활의 공간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것이 한이요, 그의 심정에서의 느낌이 번거로움을 벗어난 한정이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의 생활은 인간적 제도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했던 것이니 ‘我以天地 爲棟宇屋室 爲禪衣 諸君 何爲入我禪中,’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허균의 현실초월적인 관념의 투영인데, 이는 그가 처한 현실 즉 관리로서의 정치적 현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강렬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허균의 현실도피적인 산수자연생활에 대한 동경과 타고난 자질과 성품대로 사회의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상적 세계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허균 당대의 사대부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으니, 동양사상 중에서 인간의 현실적 삶과 사회제도인 예를 벗어난 삶에 대한 동경은 유교적 세계관보다는 노장적 세계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劉伶이라는 인물이 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서 본시 노장계열에 속하며 ‘常乘鹿車’와 ‘携一壺酒’가 역시 노장사상에 심취된 행동이라 하겠다. 또 ‘使人荷鍤 隨之曰 死便埋我’에서도 예와 생사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야말로 放達한 초월적 삶이라고 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음의 글을 살펴 보면 이런 노장적 경향은 더욱 분명해 진다.

陳眉公이 말하기를 나는 萬卷異書를 보관하고 異錦으로 옷을 지어 입고 다시 異香을 차고, 띠집 갈대 발에 종이 끈에다 흙으로 벽을 바르고 終身토록 布衣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嘯吟하니 客이 말하기를 과연 역시 하늘과 땅 사이에 一異人이라 할만하다 라고 하였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萬卷異書는 어떤 종류의 책일까. 異錦은 어떤 비단인가. 그리고 異錦으로 만든 옷은 어떤 모양일까. 특히 異香이란 도데체 어떤 종류의

8) 許筠, 『閑情錄』, 卷八, 任誕.

陳眉公曰 余慾藏萬卷異書 襲以異錦 重以以香 茅屋蘆簾 紙窓土壁 終身布衣 嘯吟 其中 客曰 果稱亦是天壤間 一 異人

향일까 몹시 궁금하다. 그런데 그 거처와 異錦 異香은 어울리지를 않는다. 거처는 茅屋 즉 띠집이니, 이 풀은 산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그 공간은 산중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산 속에 자리잡은 조그마한 은둔자의 띠풀로 지붕을 이은 그런 소박한 거처이다. 또 벽을 흙으로 발랐다고 하였으니, 아무런 장식도 없는 자연에 알맞는 집이다. 즉 회벽이 아니라는 말이다. 회벽은 궁궐의 담장을 생각하고 높은 벼슬에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의 집이 생각난다. 그러므로 茅屋土壁은 가난한 산중은자의 자연스런 소박한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뒤의 '布衣'에서도 알 수가 있다. 布衣는 布衣之士의 준말이다. 이 布衣之士는 벼슬을 하지 않은 無名의 선비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토록 세속적 부귀영화를 벗어난 은자가 異錦 즉 비단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異錦이라는 용어가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異香도 마찬가지이다. 異香은 특별한 향초이다. 이 향초는 초나라 굴원의 문학작품에도 등장하는 신선초의 일종이다. 이러한 신선초의 의미는 장생불사의 신선사상을 대변하는 물건이다. 즉 불로초와 같은 등속의 향초이다. 그러므로 異錦과 異香은 陳眉公의 산수 은둔이 長生不死의 神仙思想과 超世隱遁의 사상이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허균의 歸思의 이상형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노장사상의 산수생활에 대한 동경의 一片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노장사상의 특징은 사회조직이나 제도적 구속을 거부한다. 즉 예로 대표되는 인간사회의 문명이나 문화조차도 거부하고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退溪도 노장의 산수은둔을 '潔身亂倫'이라고 비판하여 경계하였던 것이다. 즉 허균은 조선조 사회의 제도적 구속을 벗어나 자신의 세계 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표방하였으니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질이나 氣質에 따라 자유로운 산수은둔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의 글을 살펴 보자.

方外에 노니는 사람의 행위는 비록 경계가 없으나 風流雅趣는 俗塵을 씻기에 족하고 汚濁을 맑게하여 任誕에 맡긴다.⁹⁾

9) 許筠, 『閑情錄』, 凡例.

方外散朗之士所行 雖無町畦 風流雅趣 足以洗俗塵 清汚濁 爲任誕

따라서 任誕이란 세상의 번잡함을 벗어나고 인간의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선비가 俗塵을 씻고 汚濯을 맑게 하며 風流雅趣를 즐겨, 관념적 자유와 육체의 자유를 동시에 지향하여 인간존재로서의 유한성까지도 초월하는 것이니, 허균의 산수한정은 유자적이라기 보다는 노장적 신선사상의 超世의 세계관에 기울어 있고,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비가 뜻을 넓힐 수가 있고 또 인품이 저절로 높아져 風流雅趣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10. 幽事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長者가 대숲 속에 집을 짓고 中年에 바야흐로 마을에 드는 산에 머문다는 구절은 그러나 산중에 또한 능히 道家와 같이 할 수는 없다. (중략) 佛書 육천권을 소장하고 수시로 읽고 수시로 멈추면서 오직 이웃의 노인이나 절의 승려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꽃을 대하고 과일나무를 손보고 茶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아 내는 법을 이야기 하면 그 나머지 맛은 本色에 安穩할 뿐이다. 시간을 틈타 그 말들을 모아 巖樓幽事를 만들어 土室에 둔다. 아 이것은 伊尹契稷의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일컫는 바 大人先生의 것이니 비웃지 말라.¹⁰⁾

위에서 알 수 있는 閑情은 산수생활 속에서 경물을 감상하며 얻어지는 마음의 즐거움들이나 佛書를 六千卷이나 소장하여 수시로 읽고 절의 승려들과 얘기를 나눈다는 것을 보면 그 閑情의 감정은 현실초월적인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巖樓幽事는 세상의 所謂 大人先生들이 하는 것에 속하니 비웃지 말라 하였으므로 단지 일반 세속의 번거로움을 벗어난 유학자들의 山水樂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동시에 허균의 歸思도 또한 관념적으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허균의 歸思가 여기에 미쳤다 함은, 그 閑情의 산수생활이 지향하는 경향성 보다는 오히려 그 한정이라는 서정의 내용이 상당히 주관적이며 초월적 감정

10) 許筠, 『閑情錄』, 卷十, 幽事.

故有長者 爲營栽竹地 中年方撤住山心之句 然山中 亦不能如道家 (중략) 卽佛藏六千卷 隨讀隨輟 惟喜與隣翁院僧 談花 藝果種蔬 蜀川(탁) 笈之法 其餘一味 安穩本色而已 暇時集其語 爲巖樓幽事 藏之土室 嘻 此非伊尹契稷之業也 世有所謂大人先生者 其勿哂諸

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장자의 逍遙遊의 심경을 연상하는 듯도 하다. 장자는 인간이 결핍이나 불안, 고통과 모순, 등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해방의 정신적 경지를 상징하여 遊라고 했으니, 이 遊는 그 출발이 현실적인 실용의 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이요 탈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遊를 통해서 도달되는 탈출내지 해방감은 정신의 절대적 자유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니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無己, 無功, 無名의 상태인 無待의 정신적 경계를 동경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8.任誕이나 10.幽事의 내용은 無功, 無名뿐만이 아니라 드디어는 無己의 상태에 도달하여 천지와 자연물과 자신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즉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 脫衣裸形在屋中 하고도 譏之하는 사람들에게 我以天地 爲棟宇屋室이요 爲禪衣이니 諸君은 何爲入我禪中이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생활이 俗塵을 씻고 汚濁을 맑게 하는 風流雅趣의 생활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현실적 실용을 벗어나고 人世를 초월하고자 하는 정신적 자유의 志向이라고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허균에게는 관념상의 理想에 불과하므로 비록 노장에 기울었다 하더라도 현실로서 직접 경험되고 실천된 세계는 아니었다. 결국 허균은 이상주의자로서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상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렬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현실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볼 때 許筠의 閑情은 歸思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으니, 그 사상적 배경이 노장의 이상주의적 경향에 경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閑情의 抒情은 문학에서 산수를 노래할 때 浪漫的 탐미의 抒情을 지향한다고 할 것이다.

V. 結 論

산수문학에서의 閑은 벼슬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그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閑情은 閑의 공간과 그 서정성이 결합된 미적 위상을

11) 김재열, 「장자의 예술론 연구」(고려대석사논문, 1981), p.17.

의미한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許筠의 閑은 經歷險難이나 江山之助와 같은 체험을 통하여 시의 미적境界가 大進하고 오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으며, 기교에 구애됨이 없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경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의 閑情은 歸思의 관념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隱遁의 安穩本色의 경계에 대한 이상을 형상화 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허균의 산수생활의 至樂은 佛書나 異書의 독서, 風月花竹의 감상, 端坐靜默으로 대변되는 초현실적 경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불교나 노장의 현실도피적 내지는 出世的 관념에 경도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閑情은 江山之助에서 느끼는 山水樂의 抒情으로서 노장적이며 불교적 수양의 정신까지 가미된 감정적 체험을 중요시한 感性爲主의 絃情이라고 하겠다.

셋째, 허균의 任情은 감정적 체험에 의한 새로운 生의 모습에 대한 지향과 변화를 모색하는 감정적 山水隱遁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이 任情의 서정은 현실초월적 神仙思想과 결부되어 감정의 극치를 이루고 그 감정에 몰입하여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탐미의 詩境을 열었다. 그래서 그의 순수시적 탐미의 서정은 산수생활에 대한 동경인 歸思의 지향성을 암시하는 근원이 되어, 閑情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넷째, 허균의 閑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해 나가는 변화된 의식을 반영하니, 閑情은 人爲의 사회적 삶보다는 타고난 氣質에 어울리는 자연적인 삶에 대한 이상과 希求라는 관념의 형상화이다. 즉 조선조 사회의 제도적 구속을 벗어나 자신의 세계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 자유의 希求와 즐거운 心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허균의 閑情은 山水隱遁이 지향하는 경향성보다 서정의 주관적이며 초월적인 감정으로 가득차 있다. 곧 현실적 실용의 관념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정신의 절대적 자유의 상태에 대한 회구이다. 즉 그의 閑情은 歸思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 사상적 배경이 노장의 이상주의적 경향에 경도되어 있어 浪漫的 탐미의 서정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山水文學에서의 閑情은 산수문학의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서정의 영역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우선 許筠의 閑情을 그의 『閑情錄』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앞으로 여러 산수문학 작가의 문학세계와 美意識의 지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고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當爲性이 연구과제로 남는다.